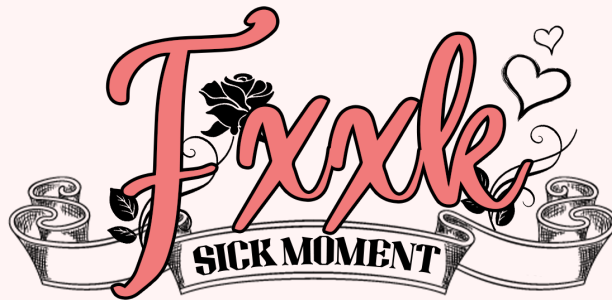


* 아래 작성된 기피사항 외의 모든 일 주유없이도 전부 괜찮습니다!
스킨쉽 및 폭력 제외하고도 그냥 캐릭터 간 갈등 역시 마참가지 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캐릭터간의 롤플로만 생각하기에 거리낌없이 해주세요.

그에 관련해 둔감한 점이 있어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들 경우 반드시 DM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늘 즐겁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TWT / 해리포터 기반 / 04 / ALL 떡커 / 그림인장 only (픽크루o) / 15D / 윤강간 불가 / 6월개장
/ 2차지인제+외부인

노출4 성행위4 폭력2 언어4

공개란

[최고의 머글]
The best muggle

“ ...내 생각이 너한테 중요하긴 할까? ”

외관



wt_prim.png

출처 : 본인

깊은 인아웃 쌍꺼풀. 풍성한 속눈썹 아래로 아마빛 눈동자가 눈에 띈다. 내려간 눈꼬리와 입매는 순하면서도 울적해 보일 때가 있다. 턱을 감싸는 머리카락과 많은 술의 하얀색 머리카락은 어쩐지 살짝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준다. 어두운 표정에 살짝 움츠러든 어깨가 어딘가 위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이 소심한 사람이라 인식할 만했다. 평소에도 이야기할 때 타인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편이었다. 마주치더라도 안의 쪽에서 금방 시선을 돌려버리곤 했다.

또래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법한 몸이다. 옷 맵시는 좋은 편이지만 한겨울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게 잘 싸매고 다녔다. 다만,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졸업 철이 가까워질수록 옷차림새가 날이 다르게 가벼워지는 편. 가끔은 아예 망토 또한 어딘가에 유기해 버리는 편이라 한다. 검은색 가죽 학생 구두를 신고 있으며 겨울이 지나고부터 얇은 커피색 스타킹을 착용한다.

이름

오르넬라 “안” 프림로즈 | Ornella Anne Primrose

성별

F

키 / 몸무게

166 / 61

나이 / 학년

18세 / 7학년

국적

스코틀랜드

기숙사

[그리핀도르]

성격

[조곤조곤, 똥한, 알고보면 개차반]

스코틀랜드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프림로즈씨의 집에는 두 딸이 있었다. 그중에 첫째 딸은 영 모자란 구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돌연 지붕에서 뛰어내려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가 하면 제 여동생의 머리를 밀어 민둥산으로 만들어두고는 했다. 그러고서는 김스를 찬 채로 자신은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느니 멀쩡한 머리로 여동생도 제 머리를 밀었다느니! 썩 믿기 어려운 거짓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프림로즈씨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 듯했다. ... 이 어린 마법사에게는 불행하게도 말이다.

안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어딘가를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곤 했다.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다. 가족이며, 선생님이며 하물며 친구들.... 시간이 흘러 11살의 여름날. 마법같이 제 손에 쥐어진 입학통지서의 앞에 안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래! 온전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

기대감이 풍선처럼 부풀어가던 안의 마음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터져버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안타깝게도 안은 '스컬에 버금가게' 마법적 재능이 부족한 마법사였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몰이해와 수많은 빈정거림, 동정과 아주 희미한 고소 속에서 안은 제 곁은 감정을 흔히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기에 급급해졌다. ...그렇게 어딘가 똥해 보이는 시니컬한 표정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자리 잡고야 만 것이다! 점점 더 어린 안에게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시작했다. 불신과 편견은 시야를 좁게 만들었고 결국에 이 어리석은 마법사는 저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안은 장장 7년 동안 얼굴을 맞대며 지내온 우리들 사이에선 가장 마법에 재능이 없는 녀석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긴 했지만.... 뭔가 성격적 결함이 있거나 그렇다고 눈에 띄는 타입조차 아니었다. 무난히 많은 사람 사이에 섞여 들어 존재가 지워질 만큼 희미한 편이었다. 오히려 많은 학생은 안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지만 착한 녀석인 줄 알고 있었다. 안은 점점 더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누구와도 무난히 말이 잘 통하는 그리핀도르였다. 처진 눈매 아래에 조용히 빛나는 갈색 눈동자가 상당히 무심해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아무튼 대충 제 속내를 여러모로 편의를 위해 숨겨온 안은 최근 졸업을 앞두고서는 꽤 심란해 보이는 듯싶었다. 머글세계건 마법세계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라.... 아마 당장 있을 졸업 파티에 대한 건도 머릿속에서 싹 비워냈을 테다. 그런 탓인지 숨겨 놓았던 까칠한 일면이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었다. 이상하게 괴상한 분홍빛 안개가 호그와트를 휩쓴 그 순간부터 오랫동안 밀봉해 둔 제 음험한 속내가 저도 몰래 툭툭 튀어나오곤 말았다.

기타사항

머글

- 스코틀랜드에서도 상당히 시골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마을의 유일한 마법사이다.
- 머글 혈통이나 묻는 것에 평소에도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었다. 곧 잘 돌려 분위기는 풀렸지만 말이다.
- 그와 동시에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꽤 기민히 반응하는 편이었다.

그리핀도르

- 오랜 시간 안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모두가 의아해하는 구석이다.
- 그러나 안에게는 기숙사 배정 자체가 무의미했고 모자에게 강력히 추천받은 곳이 그리핀도르여서 그렇게 결정했을 뿐이었다.

마법

-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완벽한 동작, 완벽한 발음, 완벽한 실패!' 라고 할 수 있다.
- 일상에서 쓸 법한 마법 한 두개를 간신히 성공할 정도로 성공률이 낮다.

- 4학년 시절에 상급생에게 너는 차라리 스컬이었던게 나았을 것이라는 폭언을 대놓고 들은 적 있었으며 이 때문에 며칠간 수업을 듣기를 거부했던 적이 있다. 대부분이 이를 알고 있다.

학교생활

- 호그와트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받은 학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나마 가장 잘 들은 마법관련 과목의 점수가 D라는 점에 주목해보자.
- 저학년 시절부터 쭉 안이 지팡이를 들고 휘두르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었을테다.
- 차라리 O.W.L.S 성적이 나옴 마법, 변신술, 어둠의 마법 방어술 등등... 상급반으로 진학하지 못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역시 마법Charms이다. 그를 이어 변신술, 어둠의 마법 방어술....
-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약초학과 점술학이다. 약초는 화초를 다루는 것과 비슷해서, 점술학은 대충 비관적인 내용을 쓰면 통과되어서.
- 할 수 있는 데도 싫어하는 과목은 마법약. 이유는 비위가 약한데 구역질나는 재료를 손질해야하니까! 점수는 O를 받았다.

지팡이

물푸레나무 Ashwood, 용의 심금 Dragon's Heart-string, 놀라울 정도로 획 소리가남 Surprisingly Swishy, 8inch

- 이 지팡이는 안의 3번째 지팡이이다.
- 전의 지팡이들은 1학년과 2학년마다 불량품인 것 같다고 올리밴더스를 찾아가서 따진 것이다.
- 올리밴더스는 이후 더 이상 '안에게는 지팡이를 팔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은터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고있다.
- 첫번째 지팡이로부터 길이가 점차 줄어들더니 결국 극단적으로 짧은 지팡이를 가지게 되었다.

성향

ALL

포지션

[M]

선호 / 기피

	선호	기피
오너	오너기피 외의 플레이 전반, 캐릭터 기피사항	비위생플, 피스트퍽
캐릭터	전희, 기승위	바이팅(깨물기), 더티톡, 아무튼 본인 기준 평범하지 않은 쪽

텍관